

# 숙영낭자전의 현대적 개작에 의한 변모

김 일 렬\*

## 목 차

I. 서 론	IV. 주제의식의 변모
II. 형태상의 변모	V. 모본 선정에 관한 문제
III. 인물의 변모	VI. 결 론

## I. 서 론

창작 당대에 이미 커다란 인기를 끌어 수 많은 이본<sup>1)</sup>을 파생시켰던 <淑英娘子傳>은 신문학기에는 신소설로 개작되기도 하고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현대소설로 개작되기도 했다. 신소설로의 개작은 1914년에 崔瓚植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제목을 <海岸>이라 했다. 현대소설로서의 개작은 1961년 安東民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제목은 원제 그대로 사용했다.<sup>2)</sup> <해안>으로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숙영낭자전>의 異本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활자본을 제외하고도) 30종이 넘는다. '83년도에 필자에 의해 확인된 것만 해도 18종이나 되고, 그 후 손경희에 의해 10종이 추가되어 28종에 이르렀으며, 근래에도 새로운 이본들이 종종 영인되어 나오고 있다. 판각본에서 나온 것이지만 활자본까지 계산하면 더욱 많다. 집중적으로 자료를 다룬 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김일렬, 朝鮮朝 小說에 나타난 孝와 愛情의 對立, 『朝鮮朝 小說의 構造와 意味』, 螢雪出版社, 1984.

손경희, 숙영낭자전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86.

2) 安東民, <淑英娘子傳>(1961), 『韓國文學大全集』 12, 芸書閣, 1977. 앞으로는 편

의 개작에 대해서는 필자가 한 차례 다룬 바 있으나<sup>3)</sup> 현대적 개작품에 대해서는 아직 다룬 바 없는 것 같아 본고에서 다루고자 한다.

<숙영낭자전>은 상호간의 차이가 다양한 수 많은 이본으로 전해오고 있다. 크게는 筆寫本 系統과 板刻本 系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들 중 판각본 계통은 필사본 계통보다 뒤에 이루어진 계통으로 보이며, 판각본 계통에서 다시 活字本이 파생되었다. 활자본은 판각본의 가장 후대적 이본인 京板 16張本을 母本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1915년을 기점으로 여러 書肆에서 경쟁적으로 출간되어 왔었으나 내용에는 거의 차이가 없어 뚜렷한 이본은 존재하지 않는다.<sup>4)</sup>

안동민의 현대적 개작본 <숙영낭자전>은 활자본을 모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활자본은 물론 판각본에서 나온 것이지만 판각본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기에 모본이 판각본이 아닌 활자본이라는 점이 쉽사리 확인된다. 판각본에는 남주인공 아버지의 이름이 어느 이본에든 '상군'으로 되어 있으나 활자본에는 예외 없이 '상군'으로 되어 있고 현대적 개작본에도 '상군'으로 되어 있으니 활자본이 모본이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필사본에는 '성추' 등 아주 거리가 먼 이름이 나온다. 필사본이나 판각본에는 없다가 활자본에 와서 나타나는 章回體가 개작본에 나온다는 사실도 참작할 만하다. 물론 장편소설은 순수한 창작일 경우에도 장회체를 사용하는 사례가 흔히 있고 또 장회의 數와 回題가 서로 다르니 장회체가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 이와는 달리 앞에서 지적한 주인공 아버지의 이름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현대적 개작본의 모본이 활자본이었다는 점을 증명해 준다. 그리고 활자본 상호간에는 내용의 차이가 거의 없으니 어느 활자본을 사용했는지는 굳이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 본고에서의 자료는 19장의 활자본<sup>5)</sup>으로 한다.

분량에 있어서 모본은 약 16800자이고 개작본은 약 82000자이니 개작본이

의상 『전집』 12'로 약칭한다.

- 3) 김일렬, 新小說 「海岸」의 改作 樣相, 『새터姜漢永教授 古稀紀念 韓國판소리 古典文學研究』, 同 刊行委員會, 亞細亞文化社, 1983.
- 4) 김일렬, 앞의 책, pp. 179-180.
- 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장본 <특별 숙영낭자전>, 大東書局, 1917. 앞으로는 편의상 '숙영낭자전'이라 약칭한다.

5배에 가까운 분량으로 늘어났다. 章回의 수는 모본의 경우 6회이고 개작본이 14회인데 回題는 서로 다르다.

이제 안동민의 현대적 개작본이 활자본을 모본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전체 위에서 몇 가지 변모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 II. 형태상의 변모

가장 뚜렷한 형태상의 변모로서는 우선 사건의 擴大現象과 縮小現象을 들 수 있다. 편의상, 옥잠이 섬돌에 꽂혀 남자의 결백이 입증되는 사건까지를 전반부라 하고 남자의 죽음 사건 이후를 후반부라 한다면 전반부에서는 사건이 크게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후반부에서는 사건이 아주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전반부에 보이는 확대의 방법은 줄거리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되 사건을 되도록 場面化하면서 자세하게 描寫하는 길을 택했다. 要約的인 敘述에서 場面中心的 描寫로 바꿈으로써 사건을 서술자의 눈 앞에 바짝 끌어당겨 대폭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단적인 예로, 모본에는 ‘괴몽을 엿고’<sup>6)</sup> 라는 한 구절로 된 추상적이고 간략한 서술로 되어 있던 태몽 대목이 개작본에는 오늘날의 활자로 3-4면의 분량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세한 묘사로 처리되어 있다. 읽다가 지나쳐 버리기 쉬운 사소한 사건이 지워 버릴 수 없을 정도로 인상지어지는 큰 사건으로 변모되어 나타나 있다. 작품의 분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주로 이와 같은 현상에 기인한다. 그것은 事件 자체의 확대이면서 表現의 확대이기도 하다. 확대를 하다 보니 사소하지만 모본에 없는 작은 사건을 추가해 넣은 경우도 흔히 발견된다. 그 하나의 예로서 선군이 다닌다는 서당의 훈장과 백상군의 대화 장면이라든지 상군 부자간의 학문에 대한 제법 긴 토론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모본의 사건이 개작본에 와서 오히려 축소되거나 삭제되어 버린 것도 전혀 없는 바는 아니니, 이를테면 초두에 나오는 시대적 배경인 ‘세종씨에’<sup>7)</sup>가 개작본에서는

6) <숙영낭자전>, p. 1.

7) <숙영낭자전>, p. 1.

아예 삭제되고 없다. 그러나 이런 것은 오히려 예외적인 현상일 뿐이고 場面 中心的 擴大는 전반부 개작의 지배적인 방법이다.

한편, 후반부에 나타나는 축소 현상은 앞의 경우와는 대조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되 그 정도는 더욱 심하다. 간혹 요약적 서술로 축소를 하기도 하지만 주된 방법은 事件 自體를 대폭 削除해 버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여 전반부와 후반부의 분량이 서로 비슷하던 모본에서와는 달리 후반부가 전반부의 이십분의 일을 약간 상회할 정도의 분량으로 줄어들었다.

후반부에서 삭제된 것은 대개 주된 사건에 붙어 있는 결가지들이거나 후일담 같은 것들이다. 전자의 예로서는 남자가 재생하자 잔치를 벌였다거나 임소저가 정절을 지키고 남자가 부덕을 발휘한 댓가로 주상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보상을 받는다는 등의 사건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서는 선군 후손들의 변영과 선군 부부 3명의 동일승천 같은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사건은 삭제해 버려도 이야기 줄거리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따라서 기본적인 논리에도 파탄이 생기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핀 바에 의거하면 형태적인 면에서의 개작의 기본 방향은 長篇小說의 性格에서 近代의 短篇小說로서의 性格으로 다소 접근했음을 알 수 있다. 분량은 엄청나게 늘어나서 단편에서 장편으로 나아갔다고 해야겠으나 작품의 형태적 성격은 그 반대의 방향으로 변모했다. 단편소설적 성격으로의 변모라는 관점에서 이미 살핀 바를 재정리하면서 보완 논의를 곁들여 두기로 한다.

모본에서는 선군 부부의 일생을 출생에서 사망(승천)에 이르기까지의 전생애를 다루었으나 개작본의 경우 남자의 재생을 작품의 결말로 삼았으니 이 점에서 우선 단편소설로의 접근을 분명히 보여준다. 전반부를 대상에 가까이 접근해서 보다 미시적으로 그려낸 점이라든지 후반부의 대부분을 삭제하고 축약하면서 사건의 진행에 속도를 가한 점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만하다. 전반부에 무게를 크게 실으면서 후반부를 아주 간략하게 처리한 것은 문제의 해결보다 문제의 제기를 중요시하는 근대소설적 성격으로의 접근을 보여주고 사건을 가능한 한 집약하려는 성향은 단편소설적 지향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Ⅲ. 인물의 변모

인물의 변모는 백상군 부자가 지닌 가치관 문제에 거의 한정되어 있으며, 변모의 정도는 선군의 경우에 특히 뚜렷하다. 우선 백상군이 선군에게 과거를 권하는 대목부터 주목할 만하다.

금번에 알성과를 뵈다 하니 너는 모로미 응과함미 맛당하도다.<sup>8)</sup>

과거에 응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조선조 양반사회의 出世志向的 價値觀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런데 모본의 이러한 가치관과는 상반되는 가치관을 개작본은 보여준다. 개작본에서는 서당 훈장이 백상군을 찾아와 선군의 재주가 워낙 뛰어나 자기로서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면 서울서 고명한 스승을 모셔다 과거 공부를 시키라고 권하자 백상군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시골에서 명색없이 살고 있긴 합니다만 서울 양반집 자제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공부만 시켰으면 되었지.....저는 그 애의 장래에 대해서 별다른 야망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중략) 조정에는 훌륭한 신하가 많거늘, 하필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길이 벼슬 길로 나가는 것뿐이겠습니까. 한날 지주로서 마름을 잘 다스려 그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해주고 세습전답을 잘 가꾸는 것도 나랏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sup>9)</sup>

조부대만 해도 조정에서 참판 벼슬을 지냈다고 한데다 자식을 서당에 보내어 공부를 시켰으니 儒家的인 價値觀 자체를 버린 것은 아니다. 아들에 대해 서울 양반집 자제에 뒤지지 않을 만큼 공부만 시키면 되지 별다른 야망이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어디까지나 유가적인 가치관 안에서 글은 양반으로 행세하는 데 필요한 敎養 정도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백상군은 자신이 대단한 재산가라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군때 묻은 피죤죄한 남산골 샘님보다야 산 좋고 물 좋은 시골에서 산수(山水)를 벗삼아 일생을 평화롭게 보내는 게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백상

8) <숙영낭자전>, p. 8.

9) <숙영낭자전>, p. 27.

군”<sup>10)</sup>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개작본의 백상군은 정치현실에서의 진출을 회의하면서 물질적인 것의 가치에 눈떠가는 조선조 말의 새로운 인물형을 연상케 하기도 하나 그리 뚜렷한 전형으로 부각되어 있지는 않다. 어쨌든 백상군이 출세지향적 의식의 소유자가 아님은 확실하다. 이 점은 그의 일련의 행동이 보여주는 논리로 보아도 그렇다. 아들 선군이 반유가적 사상인 墨家思想에 경도되자 겁이 나서 관심을 만데로 돌리고자 혼인을 서둘렀고, 남자와의 애정에 너무 몰입하자 좀 떼어놓을 양으로 과거에 응시하도록 했다. 이리하여 그 나름의 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전형을 뚜렷이 보여준다고는 하기 어렵다. 모본의 출세지향적 인물에서 그렇지 않은 인물로 변모했다. 보수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인물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 되었다.

선군은 더 뚜렷한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준다. 모본에는 선군이 과거를 권하는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 전답이 수천석직이오 노비 천여인이라, 심지시소락과 이목지소호를  
 님의티로 홀 거시어늘 무슴 부족후미 잇서 급제를 바라리잇고. 만닐 집을  
 떠누오면 낭주로 더브러 리별이 되깃소오니 소경이 절박후야이다.<sup>11)</sup>

재산이 많아 무엇이든 소원대로 할 수 있으니 과거가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자와 떨어지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개작본의 선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儒家的 價値觀 자체를 부정하고 墨子의 兼愛說을 숭상하는 입장을 보여준다. 목가사상은 유가사상과는 아주 이질적일 뿐 아니라 유가사상의 권위를 뒤집는 叛逆的인 性格까지 내포하고 있다. 목가사상의 핵심인 겸애설이 본질적으로 儒家的인 秩序觀을 거부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고 모든 집단이 자기 집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의 집단을 사랑하면 혼란과 싸움은 사라지고 이상적인 사회가 건설된다고 주장하는 겸애설은 사랑의 주체와 대상이 상하로 분리되는 階級的 等差를 전제하지 않는 것을 그 秩序觀의 本質로 한다. 따라서 그것은 혈연관계를 중시하고 그로 말미암은 사회적인 계급을 인정하면서 인간의 애정도도 등차를 두어 그것을 禮라는 형식적인 도덕틀로

10) 『全集』 12, p. 28.

11) <숙영낭주전>, p. 8.

분식하는 유가적 질서관을 거부한다. 유가사상에서 사회질서의 근본인 효라는 인륜도덕의 기반은 부자관계이고 이 부자관계부터가 대등한 사랑에 입각한 인간관계가 아닌 지배와 복종 또는 군림과 봉사의 관계일 뿐이다. 효라는 것은 그러한 불평등한 관계를 미화하는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부자관계와 같은 지배와 복종의 관계는 형제, 부부, 장유, 군신으로 확대되면서 유가적인 질서관의 본질을 이루게 된다. 개작품에서 유가의 핵심사상인 仁도 '착한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라는 치자의 도리를 말한 것'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질서관의 연장선 위에 있는 것이다. 유가의 이념은 이처럼 계급사회, 차등사회를 수호하는 지배의 이념, 지배의 철학인데 목가사상은 대등한 입장에서 사랑의 역설하니 종족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사상으로 규정되었으며 그래서 맹자는 아버지 몰라보는 짐승 같은 것이라고 비난했다.<sup>12)</sup> 요컨대 선군은 특정한 이념에 채색되지 않은, 사랑의 정열에만 불타는 순진한 청년에서 반주자학적 정치사상을 지닌 진보적인 지식인으로 변모된 것이다.

선군의 이와 같은 사상적 변모는 몇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수행한다. 첫째는 선군의 행위에 이념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부자간의 관계를 이념적인 적대관계로 만드는 기능이다. 갈등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여 설득력을 증대시키고 세대간의 이념적 갈등이 조선 후기 사회의 한 단면임을 보여주려 한 개작자의 의도를 엿보게 한다. 둘째는 백공부부가 선군의 혼인을 서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선군이 유가사상과 목가사상의 비교론을 전개하면서 목가사상의 가치를 역설하자 백공은 "까딱 잘못하다가는 우리 집안이 전부 절단이 나겠구나. 이 애의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도 어서 성례를 시켜야겠다!"<sup>13)</sup>고 했다. 셋째는 낭자와 임소저가 貞節과 婦德을 잘 지킨 덕분에 主上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보상을 받고 선군이 주상의 賜婚으로 두 아내를 두게 되는 일련의 사건을 깨끗이 삭제해 버릴 수 있는 이념적 근거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선군에게 투영된 개작자의 정치사상은, 인륜도덕으로 한껏 미화된 유가사상이야말로 지배계층이 우민정치를 펴면서 일신의 영화나 추구하는 치자 중심의 가치관일 따름이라고 하는 비판의식을

12) 『墨子』, 金學主 譯解, 明文堂, 1989, p. 22 (解題).

13) 『全集』 12, pp. 32-33.

내포하고 있기에, 인륜도덕의 실천으로 국가적인 보상을 받고 과거에 급제해 두 아내를 거느리게 된다는 내용을 삭제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을 삭제하기 위해서도 계급적 등차를 인정하지 않고 인류애를 외치는 목가사상으로 선군을 무장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기능을 위해 선군을 목가사상의 소유자로 바꾸어 놓았다.

#### IV. 주제의식의 변모

<숙영낭자전>은 하나의 양반가정을 배경으로 하여 자식에게 효를 강요하는 부모와 애정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자식 사이의 갈등에서 부모가 비판되고 자식이 옹호되는 구조를 통해 부모에 대한 孝道보다 부부간의 愛情이 더욱 重要하다는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효와 애정이라는 상반되는 가치관이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일 바에야 愛情의 欲求는 孝를 저버리고서라도 充足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sup>14)</sup> 작품에서 그 밖의 의미도 찾아볼 수 없는 바 아니지만 효보다 애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주제 이상으로 기본적인 포괄적인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숙영낭자전>의 작품구조는 그와 같은 주제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효보다 애정이 중요하다는 주제의식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는데 갈등다운 갈등은 科擧 응시 문제를 두고 일어난다. 백상군은 선군에게 과거를 보러 가라 하고 선군은 재산의 풍족함과 낭자와의 이별의 어려움을 들어 일단 거부함으로써 부자간에 갈등이 야기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뜻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효를 요구하는 셈이다. 그리고 아들이 과거 보러 가기를 거부한 이유의 하나가 애정 문제였다. 따라서 이 부자간의 갈등은 곧 효와 애정의 대립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점은 양본에 동일하다. 그런데 모본에서는 백상군이 과거에 급제하면 “네 부모 영화롭고 또한 도선을 빛ն미 아니 되랴”<sup>15)</sup>고 하여 부모와 조상을 위해 과거를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14) 김일렬, 앞의 책, p. 201.

15) <숙영낭자전>, p. 8.

데 반해 개작본의 경우 상군은 선군이 책을 멀리하고 아내만 가까이한다는 점과 앞으로 살림을 맡아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모본은 부자간의 갈등이 효와 애정의 대립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으나 개작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또 부모가 과거 응시를 강요하는 행위가 모본의 경우에 설득력이 훨씬 크게 나타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백상군의 신분이 시골 선비라는 데 있다. 시골 선비라는 점 외에는 아예 별다른 소개가 없는데 소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가치관이랄까 하는 것이 더 잘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조선조의 선비라면 과거를 통해 출세하는 것이 한결같은 꿈이었고, 백상군처럼 나이 많은 시골 선비라면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자식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 백상군이 선군을 보고 “모로미 응과학미 맛당호도다”<sup>16)</sup>고 한 것이나 “요형 참방홀진디 내 부모 영화롭고 또 혼 도션을 빚늬미 아니 되라”<sup>17)</sup>고 한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말이다. 『小學』의 “立身行道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sup>18)</sup>라는 교훈이 속화되면서 이루어진 가치관에 바탕을 둔 말이다. 백상군의 이러한 행동에는 전혀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조선조의 나이 많은 선비라고 소개된 것 자체로서 충분하다. 그는 당대 시골 선비의 典型에 속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작본의 백상군은 그런 전형이 아니다. 전형이 아니기에 행위에 대한 이유 설명이 장황하게 나타나 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백상군은 재산이 풍족할 바에야 전원생활이 좋고 과거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 점에서는 선군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아들에게 과거를 권한 것은 선군이 아내와 너무 가까이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도 네가 꼭 과거에 급제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만.....”<sup>19)</sup>하고 모호한 태도를 보여 주기도 하고 선군이 전날에는 벼슬길보다 유유자적한 생활을 좋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자 지금도 그 생각이야 변함이 없지만 자신이 나이를 먹고 보니 자식이 임신양명하는 것도 보고 싶다는 변명 같은 대답을 했다. 이에 비하면

16) <속영남주전>, p. 8.

17) <속영남주전>, p. 8.

18) 『小學 孝經 孝經附傳』(影印本), 景文社, 1979, p. 37.

19) 『전집』 12, p. 154.

모본에서 나이 많은 시골 선비가 아들에게 과거로써 부모를 영화롭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자연스럽기도 하거니와 당대 전형적인 선비의 완고성까지 암시한다. 개작본에 와서는 주제의식이 그만큼 흐려져 있다. 선군의 가치관도 주제의식을 약화시킨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개작본에서 선군은 남을 사랑하기를 나를 사랑하듯이 하라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아버지 백상군에게 목가사상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사상적 입장을 밝히는 사건은 아버지 상군으로 하여금 혼인을 서두르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효보다 애정이 중요하다는 주제를 구현하는 데는 오히려 장애가 된다. 혼인을 서두르는 이유로서 구태여 선군의 사상적 반역을 들추어낼 것까지도 없다. 개작자 자신이 모본에도 없는 말, 즉 나이로 보아 선군의 혼인은 오히려 늦었다고 하였듯이, 그렇다면 백상군이 아들의 혼인을 서두르는 것은 당대의 사고방식과 관습으로 보아 당연한 일인 것이다. 효와 애정의 대립을 더욱 날카롭고 심각한 문제로 제기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어떤 사회적 이념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오히려 경직화된 유가사상 하나로 국한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유가사상은 바로 효도를 완고하게 강요하는 부모의 행위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선군과 낭자 사이의 애정과 같은 남녀간의 애정은 이념화되기 이전의 것이며, 그것은 유교도덕의 중압 밑에 억눌려 있는 순수한 본능적 욕구라는 점에서 오히려 일정한 사회적 이념으로 정립되지 않은 무엇이다. 그렇기에 작품은 나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라는 목가사상이 발붙일 곳이 못된다. 적어도 주제의식이라는 면에서는 그렇다. 목가사상에서 주장하는 사랑은 이 작품에서의 사랑과 같은 것이 아니다. 개작본에서 선군이 꿈에 본 숙영낭자를 애타게 그리다가 인류애를 외치는 목가사상을 생각하고 “자기가 숙영낭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하나의 욕정(慾情)으로 느껴질 뿐 고귀한 애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괴로웠다.”<sup>20)</sup>고 한 대목에서 보듯이 그런 차이가 실제로 인식되어 있기도 하다. 자신의 지식과 욕정 사이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그린 것 그 자체는 인간적 진실의 형상화라는 점에서는 좋다고 하겠지만 이 작품에서 인간적인 고뇌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목가사상과 그것에 반발하는 욕정 사이의 것이 아니라 당연히 효를 뒷받침하는 유가사상과 욕정 사이의 것이어야 할 터이

20) 『全集』 12, p. 101.

다. 더욱이 治者の 이익이나 노리는 유가의 愚民政治를 비판하면서 목가사상을 높이 평가하는 선군의 정치관 피력<sup>21)</sup>은 주제의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또한 낭자가 죽는 방법의 차이도 주제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모본에는 낭자가 “금침을 도도고 섬섬옥수로 드는 칼을 드러 가슴을 질너 죽으니.....”<sup>22)</sup>라고 되어 있으나 개작본에는 “말을 마치자 숙영은 가슴에 두 손을 합장한 그 모습대로 숨이 지고 말았다.”<sup>23)</sup>고 되어 있다. 모본에서든 개작본에서든 죽음이 있기 전에 옥잠에 의하여 낭자의 억울함은 충분히 밝혀졌고 그에 따른 시아버지 백상군의 잔혹한 사죄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본에서는 칼로 가슴을 찔러 죽었다고 했으니 그것은 부모에 대한 분명한 抗拒의 意味를 지닌다. 그러나 개작본에서는 자진을 했다 했으니 슬픔이 극도에 달했다는 점은 드러나지만 항거의 의미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곧 모본의 경우에 자식에 대한 옹호와 부모에 대한 비판의 정도가 더욱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다시 효보다 애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주제의식을 강조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개작본에서 애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은 모본의 경우와 다르지 않지만 애정의 보편적인 가치를 그 자체대로 강조하려는 성향으로 현저히 기울어져 있는 점은 모본의 경우와 구별된다. 모본에서는 애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되 그것을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사회적 상황을 통해 강조하기 때문에 애정의 가치가 더욱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절실성을 얻는다. 곧 애정을 특정 시대의 특정 이념과 부딪히게 함으로써 그것의 강렬성과 가치를 입증해 보이고 있다. 애정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조선 후기 사회의 효라고 하는 특수한 도덕적 이념을 통해 보다 생생하게 입증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념이 지닌 비인간적인 횡포가 애정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의해 폭로되기도 한다. 개작본에는 효와 애정의 대립 자체가 모본의 경우만큼 강하지 않으니 애정의 가치도 그만큼 적극적으로 강조되지는 않는다. 개작자는 효와 애정의 대립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대신 (이는 의도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애정을 그 자체대로 강조하려는 의도를 뚜렷이 보여준다. 이를테면 선군이 꿈에

21) 『全集』 12, pp. 31-32.

22) <숙영낭자전>, p. 20.

23) 『全集』 12, p. 206.

본 낭자를 그리워하는 대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개작자는 편집자적 논평의 형식을 빌어 사랑에 대해 아주 장황하게 역설해 놓았다. 내용인즉 남녀간의 사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였고 그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메마른 인간 생활을 윤택하게 해왔으니 사랑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다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랑의 보편성과 그 아름다움을 해설한 것인데 이러한 해설 내용으로 보아 사랑이 주로 그 자체로 이해되면서 그것과 특정 시대 특정 사회의 관계가 진지하게 의식되지는 않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개작자는 사랑 그 자체를 강조하는 데 너무 정열을 쏟은 나머지 애정과 특정 상황의 관계에는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러한 태도가 바로 효와 애정의 대립을 모본의 경우보다 훨씬 느슨하게 다루어 버렸다. 주제의식이 흐려진 것은 그 때문이다. <숙영낭자전>의 가치는 단순히 애정 욕구의 강력함을 그린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류 보편의 욕구가 특정 시대의 특정 이념과 부딪히면서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가 중요하다. 그 부딪힘을 통해 애정의 강력함도 생생하게 드러나고 한 시대 한 사회에 구체적으로 존재했던 특정 이념의 부정적 가치도 명백하게 확인되기에 이른 것이다.

## V. 모본 선정에 관한 문제

고전소설이 일반적으로 많은 이본들로 전승되어 오고 있지만 <숙영낭자전>은 그 중에서도 이본의 수가 특히 많고 상호간의 차이도 보기 드물게 다양하다. 다양한 차이가 구조나 주제, 나아가서 작품의 가치에 관련된 것이라면 개작에 있어서의 모본의 선정은 아주 중요하다.

<숙영낭자전>의 이본들은 크게 보아 네 가지 異本群으로 나누어진다.<sup>24)</sup> 이본군을 변별할 수 있는 특징은 작품의 후반부에 있는데, 후반부의 사건이 '장례-재생-시련-재회'로 전개되는 제1군, '장례-재생-재회'로 전개되는 제2군, '장례'로 끝나는 제3군, '재생-재회'로 전개되는 제4군 이 넷이다. 이들이

24) 김일렬, 앞의 책, p. 82.

나타난 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작품구조 및 내용으로 보아 위에 열거한 순서대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제3군은 철저한 비극적 결말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애정에 대한 옹호와 효에 대한 비판이 철저해 주제의식 및 현실의식이 가장 강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1군이 그 다음쯤 되고 제2군이 또 그 다음쯤 되며 제4군이 가장 뒤떨어진다.<sup>25)</sup>

개작의 모본은 활자본이고 활자본은 판각본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판각본의 모든 이본이 제4군이니 결국 모본은 제4군에 속하는 셈이다. 제4군은 가장 늦게 형성된 이본군이자 원작으로부터 가장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흥미본위의 상업적 성격으로 현저히 기울어지면서 개성이 크게 흐려져 있으며, 문체의식도 둔화되어 있다. 숙영낭자의 정절과 부덕, 임소저의 정절 등으로 하여 주상으로부터 賜婚을 받아 선군과 임소저가 혼인을 하게 되고 두 부인이 각각 정렬부인과 숙렬부인이라는 직첩을 받는 등 양반계 소설의 상투적인 권선징악적 내용도 거의 제4이본군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한 권징적 내용이 관념적 인과론을 강화하는 대신 현실의식을 둔화시킨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적 개작본은 모본을 맹종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면모를 일신시켰다. 그런데 전승되어 오는 많은 다른 이본에서는 이미 옛날에 그 이상의 개작을 해 놓았다. 이를테면 현대적 개작본의 개작자는 선군을 유가사상을 비판하고 묵가사상을 지닌 인물로 바꾸어 놓고 “.....자기 한 몸의 즐거움과 영화만을 생각하고 처첩을 거느리는 것을 당연하게 아는 벼슬아치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잘 될 까닭이 없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sup>26)</sup>고 말하게 했는데, 이는 뒤에 선군이 임소저와 혼인해 두 아내를 두게 되는 사건을 삭제해 버린 것과 상응관계를 이룬다. 곧 개작자는 일부다처제나 축첩제 같은 제도나 관습이 治者 중심의 잘못된 유가적 가치관의 산물임을 간파하고 선군이 두 처를 두는 사건을 삭제하기 위해 선군으로 하여금 유가사상을 비판하고 묵가사상을 역설하는 진보적 지식인으로 변모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양치 문제는 이 작품의 주된 문제가 아닌 지역적인 것이며 지역적인 것을 해결하느라 중심적인 것(이를테면 구조나 주제)을 희생시

25) 김일렬, 앞의 책, pp. 215-220.

26) 『全集』 12, p. 32.

키는 결과에 이르렀다. 이미 옛날에 중심적인 것을 다치지 않으면서 양치를 두는 사건을 삭제하는 지혜를 개작자들은 발휘했으며 그런 이본이 한둘이 아니다. 이들 이본의 개작자들은 곧 정당한 애정 욕구를 억압받으면서 억울하게 희생되는 자식의 처지를 동정하고 효를 강요하는 부모의 독선과 횡포를 응징하기 위해 선군으로 하여금 중도에서 혼례를 올리고 가자는 아버지의 권유를 뿌리치고 귀가하도록 했으며 끝내 임소저와의 결혼을 거부하도록 만들었다. 많은 이본들에서 자식을 희생시킨 댓가로 백상군 부부가 지난날을 후회하며 슬프고 쓸쓸한 만년을 보내는 것으로 처리해 놓았다. 그런가 하면 비통하기 이를데 없는 남자의 장례장면을 작품의 결말로 삼아 독자에게 더 할 수 없는 충격을 주어 잘못된 현실에 대한 냉엄한 인식을 촉구하는 이본도 있다. 요컨대 현대적 개작본이 나오기 오래 전에 문제의식이 뚜렷한 이본들이 수많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적 개작본이 나온 '60년대 초반 하더라도 판소리계 소설을 비롯한 몇몇 작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본에 관한 조사나 연구가 거의 없는 형편이었고, 더욱이 <속영남자전>에 다양한 차이를 지닌 수많은 이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80년대 초에 와서야 필자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되었으니 우수한 이본을 모본으로 선정하지 못한 개작자를 나무랄 일도 못된다. 현대적 개작자가 그런 이본들에 먼저 접하고 나서 개작을 했더라면 그런 이본들보다 또 한걸음 더 나아간 개작본을 만들어 내었을 터인데 그럴 수 없었던 것이 아쉽다. 앞으로는 고전을 현대적으로 개작하려 할 때에 개작이라는 작업 자체에 쏟는 정열에 못지 않게 모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현대적 개작품은 남겨주고 있다.

## VI. 결 론

고전 작품을 현대적으로 개작한다는 것은 고전문학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의를 지닌다. <속영남자전>은 그 주제의식 내지 문제의식에 있어서 당대는 물론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인 의의를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효와 애정의 충돌이라는 문제의식은 오늘날의 사회에도 살아 있는 것이며 더 근본적으로 그것은 삶의 순수한 의지와 관념의 충돌이라는, 인간으로서는 회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과제로 귀착된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의 개작은 그 작업 자체가 이미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고 해도 좋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작해야 하느냐에 대한 정답이야 있을 수 없지만 개작의 근본 의의가 전통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점과 개작품의 독자가 현대인이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이미 살핀 바를 간략하게 요약해 결론을 삼기로 한다.

첫째, 형태적인 면은 모본의 기본적인 성격을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대 독자의 취향과 감각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변모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인정할 만하다. 문제 제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중요한 대목을 확대하면서 미시적으로 묘사한 점, 문제 해결 부분을 대폭 축소하고 진행에 속도를 가한 점, 서두와 결말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바꾼 점 등은 현대 독자의 소설 독서 경험과 감각에 매우 충실한 처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인물의 변모에 있어서는 백상균과 그 아들 선군을 사상적인 면에서 모본의 경우와 아주 다르게 설정해 놓았는데, 작품이 조선 후기의 것임을 감안해 변화된 시대의 인물로 재창조하려는 의도와 더불어 개작자의 정치사상을 작품에 투영하려는 의도에서 인물에 일대 변모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백상균은 벼슬하던 신비의 후예이면서도 당쟁 시대의 정치현실에 실망하고 물질적인 가치에 눈여가는 새로운 인물형으로 변모시켰고, 선군 역시 지배이념이었던 유가사상과는 상치되는 가치관 및 질서관을 가진 새로운 인물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두 인물이 그러한 작업에 의하여 개성적인 색깔을 지니면서 유형성을 다소 탈피한 것은 사실이나 그 대신 전형으로서의 성격은 오히려 약화되면서 작품 본래의 구조와 주제를 흐리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인물의 변모 자체는 그 나름의 의의를 지닌다 하겠으나 다른 면과의 유기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셋째, 부모에 대한 도리보다 부부간의 애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모본의 주제의식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긴장된 갈등을 통해 구현되는 것인데, 개작본에서는 주요 인물의 변모를 통해 갈등을 완화시킴으로써 주제의식도 약화시

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개작본에도 애정의 중요성이 한껏 강조되어 있긴 하나 애정이 그 자체대로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모하면서 모본에서처럼 효과 애정의 충동이 빚어내는 심각성을 통해 애정의 가치를 생생하게 재입증하고 효의 맹점과 횡포를 철저히 폭로하는 진지성의 극치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다.

넷째, <숙영낭자전>은 다양한 차이를 지닌 수많은 이본들로 전승되어 오고 있는데, 문학적 가치에 있어서 우열의 차가 아주 심하다. 현대적 개작의 모본으로 활용된 활자본은 그들 중에서 안타깝게도 가장 열등한 위치에 있는 자료이다. 현대적 개작본이 나오기 훨씬 전인 고전소설 시대에 이미 작품의 개성을 변질시키지 않으면서도 작품 본래의 문제의식을 아주 뚜렷이 강화시켜 높은 수준에 이른 이본들이 무수히 이루어져서 오늘날까지도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적 개작본이 나온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런 이본들이 조사 연구된 일도 없고 그런 데 대한 관심도 없었기에 개성과 가치를 크게 상실한 흥미 본위의 상업적 소설이 현대적 개작의 모본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그 때로서는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자료가 활자본뿐이다시피 되어 있었으니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숙영낭자전>에 대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고 소설 이본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일반화되어 있는 오늘날, 고전 작품의 현대적 개작에 있어서는 개작이라는 작업 자체에 기울이는 노력에 못지 않게 모본의 바람직한 선정을 위해 세심한 배려와 깊은 연구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현대적 개작품은 남겨주고 있다.